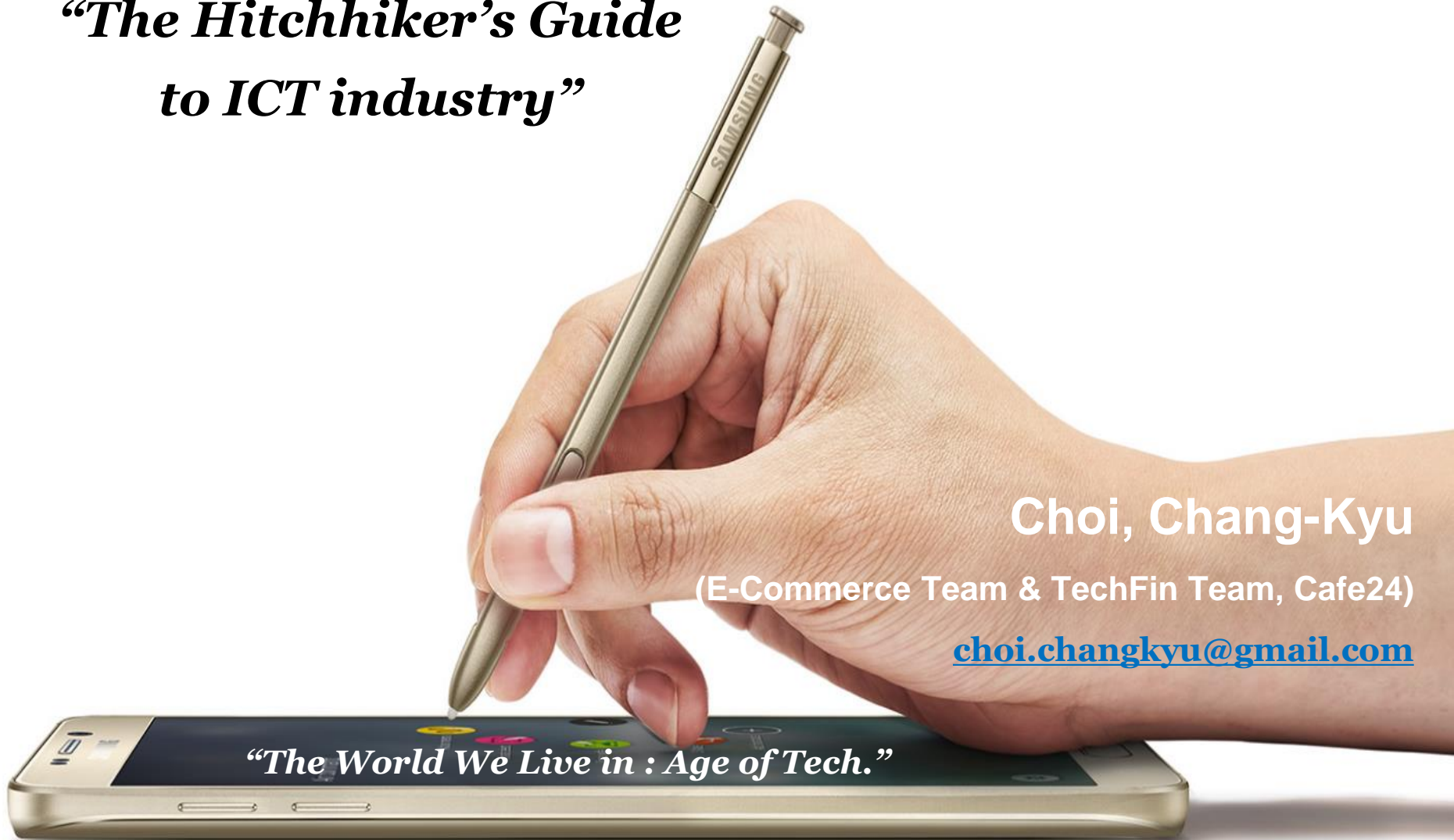


***“The Hitchhiker’s Guide
to ICT industry”***



Choi, Chang-Kyu

(E-Commerce Team & TechFin Team, Cafe24)

choi.changkyu@gmail.com

“The World We Live in : Age of Tech.”



O

P

[

Q

&

A

>

?

/





RENE DESCARTES
1596 - 1650
PHILOSOPHE MATHÉMATICIEN
PAR JOE BRANT 1999



'René Descartes (1596 ~ 1650)'





루브르 박물관에서 시민 혁명까지 전통과 문화로 만나는 프랑스

세상의 멋쟁이들이 다 모인 도시 파리, 유럽의 통일을 꿈꾸었던 나폴레옹, 수많은 예술품을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는 유명한 이름들이야. 그리고 프랑스는 전 세계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널리 퍼뜨린 혁명의 나라로도 유명하지. 유럽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프랑스에서 어떻게 시민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유난히 애국심이 강해 스스로 '위대한 나라'라고 부르는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보자구. 오랜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에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



새로운 세대, 달라진 세상에는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로!

- 1권 네덜란드 자유로운 사고와 열린 관용으로, 용모와 기행을 이룬 나라
- 2권 프랑스 자유·평등·박애의 정신, 철학과 혁명의 나라
- 3권 도이칠란트 원칙과 실사의 국민, 분단 국가에서 연의 중심 국가로
- 4권 영국 의학 민주주의의 본고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나라
- 5권 스위스 전쟁 없는 영구 중립국,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
- 6권 이탈리아 광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 찬란한 시경 문명의 발상지
- 7권 일본1 일본인 편 가깝고도 먼 나라, 오래된 역사를 견고 일본문화 속으로

- 8권 일본2 역사 편 알다가도 모를 나라, 역사로 속사정히 이해하는 일본
- 9권 우리나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지도
- 10권 미국1 미국인 편 행단양령 속의 정글, 세계 초강대국의 두 얼굴
- 11권 미국2 역사 편 신대륙 발견에서 열기 시작까지, 240년 미국역사의 여행
- 12권 미국3 대통령 편 조지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 정치문화의 읽는 키워드
- 13권 중국1 근대 편 청나라 후가에서 중화민국의 성립까지, 천하 제국이 국민이 나라로
- 14권 중국2 현대 편 문화대혁명을 넘어 G2 강대국으로, 동역 화려한 부활
- 15권 스페인 유럽의 문화·예술 역사의 기원, 열정과 낭만의 나라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 추천도서
한국어린이도서상
특별상

책·마·세 추천도서
오늘의 우리 문화상
기자들이 선정한
베스트 인문학서적



KIC리프는 이 제품을
권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값 12,900원

이원복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세계 역사 여행



시즌1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2
이원복 글·그림

최신 전면 개정 ★★★★★

자유·평등·박애의 정신,
철학과 혁명의 나라

France



이원복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도 프랑스 사람에 대한 평판은 다른 나라와 달라.

자존심이 센 프랑스인!

논리적이고 딱지기가 좋아하고

철학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면 끝이 없고...

말 짧고 지기 싫어하고

"문화"는 오직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텍시 기사부터 대통령까지 철학자...!

CULTURE! 킬팅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즉 '말'로써 합리화하는 프랑스인이다 보니

...니까...으로...라서...이니...인 관계로...보니...이다!

프랑스인이 말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말로써 말 많지만 말 없으면 바보인 줄 아는 나라!

그러나 설βολ리 프랑스인과 토론을 하려 드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 논리적으로 자신 있다면 몰라도.

프랑스 사람을 표현하는 '에스프리'란 프랑스인 특유의 지적인 정신을 일컫는 것으로 영국인의 '유머'와 대칭되지

에스프리.

유머.

어려운 말로 자아(自我)가 강하다는 의미야.

나 MOI!
무아

죽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고한 자기 주장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오대세 데카르트가 어떤 인물이기에 오늘날 프랑스인을 이처럼 '수다스럽게' 만들었을까?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로

```

    graph LR
      A[고대 그리스 철학] --> B[중세 신학]
      B --> C[르네상스 철학]
      C --> D[데카르트]
      D --> E[합리론]
      D --> F[계몽 철학]
      D --> G[관념 철학]
    
```

철학의 주인공, 즉 주체를 신(神)으로부터

神 철학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강한 '자아' 의식을 지닌 철학적인 프랑스인.

도이치 사람들이 가장 철학적이었던데...

도이치 사람은 철학을 '하고', 프랑스 사람은 철학을 '말하지'!

이 전통은 데카르트 이래 내려오는 프랑스의 정신적 흐름이제

René Descartes
1596 ~ 1650

같은 유럽인이면서도 영국, 프랑스, 도이치인은 서로 다른 국민성을 지니는데

인간 그리고 '나'로 끌어올려서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어.

인간

그로 인해 철학의 후진국이었던 프랑스가 일약 서양 철학의 중심지가 되고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철학은 독특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캉, 데리다, 사르트르, 푸코, 해체주의, 레비스트로스,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무엇보다 경험을 중요시하여 경험론적 철학 전통을 지닌 영국인.

보지 않은 것, 겪지 않은 것은 믿지도 말라!

경험보다는 이성의 힘으로 모든 사물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합리적인 철학 전통을 지닌 프랑스인.

까증 나... 보이지 않은 것은 철학의 대상이 안 되다니!

경험과 논리를 결합해 메시지를 풀어내는 관념론적 전통의 도이치 사람.

합리론 vs 경험론

둘 다 중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Gogito ergo Sum!
(코기토 에르고 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한마디가 바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180도 뒤바꾼 혁명적 선언인데

나 EGO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사양인.

특히 유럽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데카르트는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영구히 변치 않는 절대로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했지

絶対存在
절대 존재

영구불변
절대 확실

영구히 변치 않는 절대로 확실한 것은 신(神)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시대에

하느님은 절대자시며 영구불변의 존재시다!

더 이상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가. 있을 수 있는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은가!!

데카르트는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무(無)로 돌리고

다 잃었던 지식이야.

진정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으려 했어.

고민... 고민... 사색... 사색.

변민... 변민.

신을 제쳐두고 어떻게 변치 않는 절대 확실한 존재를 찾으려 들었을까?

Sorry...

절대 확실한 존재

그것은 17세기 그가 살던 시대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로

어이... 어이... 어이...

지금까지 절대 확실하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허물어지고 있었거든!

어이... 어이... 어이...

오랜 사색을 통해 데카르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어.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 빼고는...'

눈에 보이는 것도 변한다. 양초의 모습도 타고 나면 촛농으로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 초는 없다.

귀에 들리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뽀... 뽀... 뽀...

인류는 수천 년간 세상을 평평한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바다

자구는 둥글다는 것이 증명되어 과거에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실이 뒤집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임이 증명되기도 했지.

태양

지구

심지어 내가 있는 이 방,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도 믿을 수 없다.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 절대 변치 않고 절대로 확실한 것은

1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바다의 끝은 낭떠러지인 줄 알고 무서워했었는데

돌아가자, 여기가 세상 끝이야!

그 끝에는 드넓은 신대륙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모든 이가 믿어온 그리스도교가 종교 개혁으로 갈라져버린 것도 크나큰 충격이었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오직 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기토 에르고 슝!'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철학이 바로 철학의 역사. 나아가 인류의 정신사를 완전히 바꾸어놓았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그 생각의 힘을 이성(理性)이라 하고

이성의 힘으로 모든 일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유럽인, 특히 프랑스인의 기분이 된 거야.

이성 = REASON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곧 요런 것이다!

입만 살았다...

신(神)을 중심으로 하던 철학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데카르트

그로부터 근대 서양 철학은 '나'와 '자아' 위주로 물질의 흐름이 바뀌었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합리주의 철학은

제대로 찾아주세요!

합리주의 철학

이성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제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는

계몽사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인 발판이 되었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계몽

프랑스인의 혁명적인 기질은 데카르트 철학에도 혁명적으로 저항하여

이성! 아니다!

이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구체주의

표상학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I think, therefore I am.”

수학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보다 멀리, 보다 넓게 바라보는 수학의 세계!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상성'이 강한 수학적 사고의 특성과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수학의 추상성을 희석시키고 수학 개념과 원리의 설명에 구체성을 부여하여 쉽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는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친숙하고 생동감 있게 재구성함으로써 수학을 접근하기 만만한 교과목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또한 중간중간에 곁들여진 수학자들의 에피소드는 자칫 무료해지기 쉬운 수학 공부에 율활유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수학 본서(冊)> 저자,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박경미

수학자들이 수학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신선한 학구열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거북선하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듯이 데카르트하면 좌표평면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준다. 책 제목에서 벌써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옛 수학자가 다시 되살아나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다는 것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부경대학교 교수 송하주

나도 한 번씩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중간 중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잘 들려주는 편이다. 지루한 수업 시간에 듣는 위인들의 이야기는 여름날 마시는 시원한 청량제와 같다. 하물며 딱딱한 수학에 그 수학을 만든 장본인이 등장하여 설명해 준다면 여름날 청량제에 얼음을 뚱뚱 띄운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은 교사인 나도 읽어보고 싶어진다. 아무쪼록 공부에 지친 우리 학생들에게 시원한 청량제 같은 책이 되길 바란다.

남성초등학교 교사 윤종식

값 11,000원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20

데카르트가 들려주는

좌표 이야기

[김승태 지음]

주 | 자음과모음





cartesian coordinate



전체 이미지 동영상 뉴스 지도 더보기 도구

검색결과 약 22,000,000개 (0.58초)

다음말: 한국어 검색결과만 검색합니다. 환경설정에서 검색 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rtesian_coordinate_s...

Cartesian coordinate system - Wikipedia

A **Cartesian coordinate system** in a plane is a coordinate system that specifies each point uniquely by a pair of numerical coordinates, which are the signed ...

[History](#) · [Description](#) · [Notations and conventions](#) · [Cartesian formulae for the plane](#)

https://ko.wikipedia.org/wiki/데카르트_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데카르트 좌표계(영어: **Cartesian coordinate system**)는 임의의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내적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 중 하나이다.

관련 질문

What is Cartesian coordinate? ▾

How do you find Cartesian coordinates? ▾

What is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used f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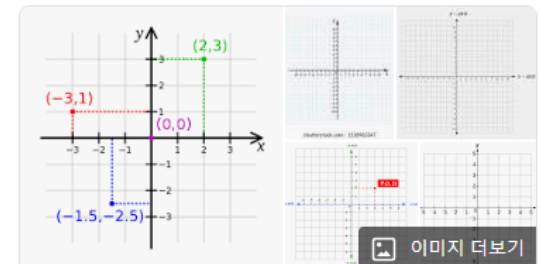
What are examples of Cartesian coordinates? ▾

사용자 의견

https://mathinsight.org/cartesian_coordinates

Cartesian coordinates - Math Insight

The **Cartesian coordinates** (also called rectangular coordinates) of a point are a pair of numbers (in two dimensions) or a triplet of numbers (in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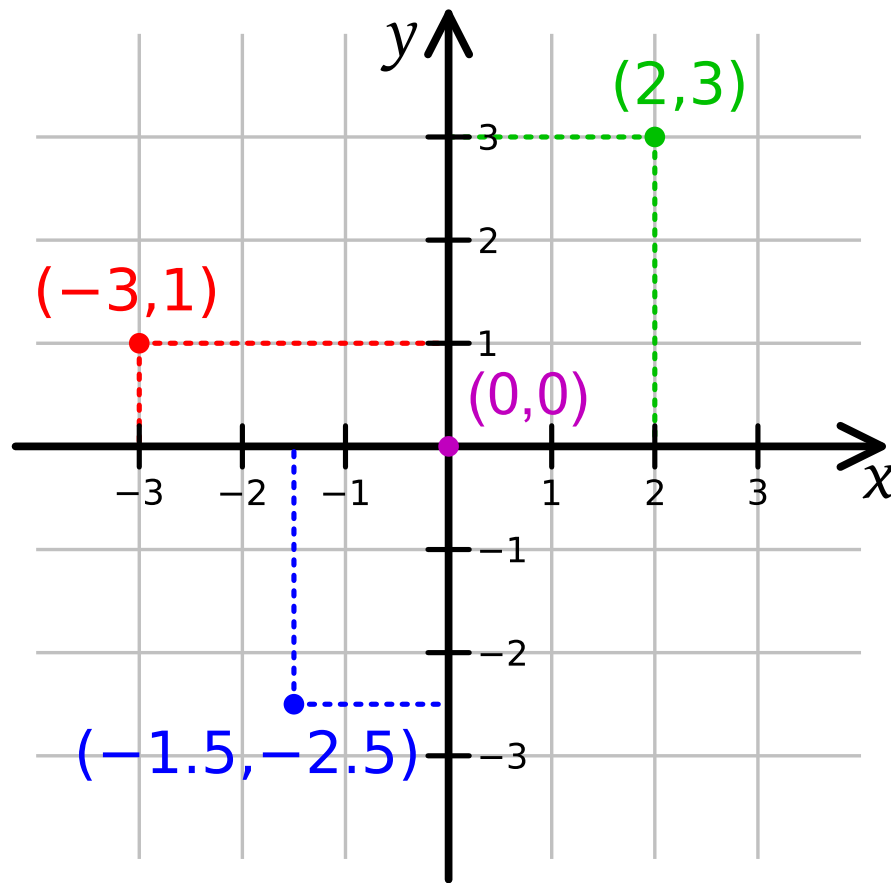


데카르트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 system)

데카르트 좌표계는 임의의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을 나타내는 좌표계 중 하나이다. 천장을 날아다니며 옮겨보는 파리를 통해 영감을 얻어 해당 좌표계를 발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위키백과](#)

문제 신고

Narrative



Intuitive

Log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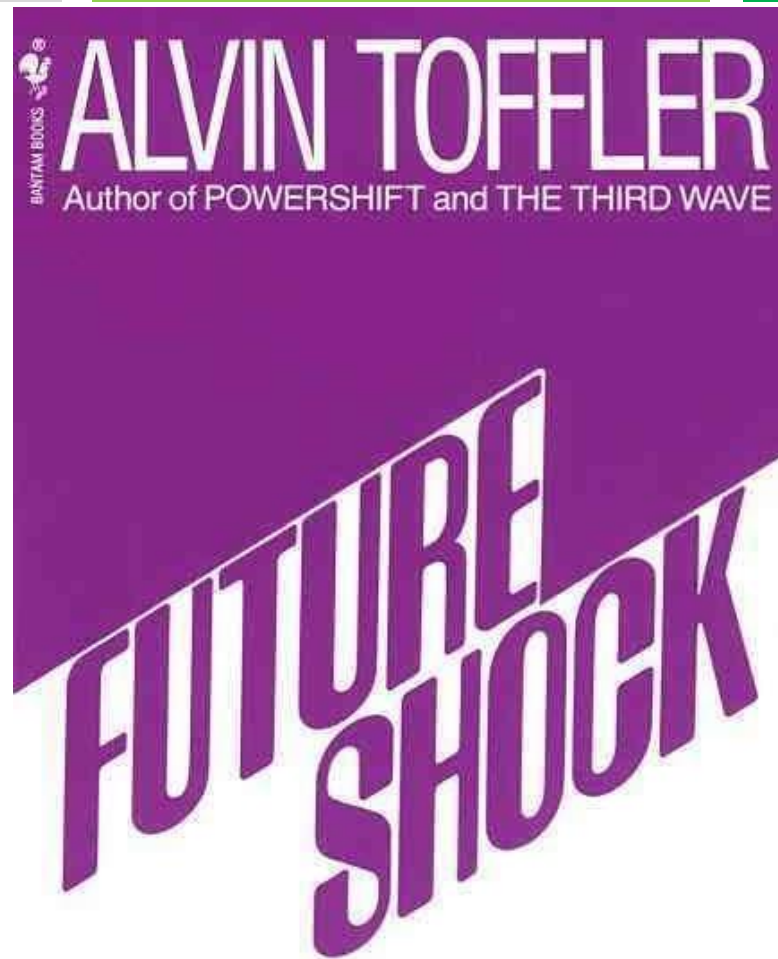
Numerical

Before I Start





Alvin Toffler (1928~2016), American writer & futurist



“No serious futurist deals in predictions.”

“These are left for television oracles and newspaper astrologers.”

Another reservation has to do with the verb "will." No serious futurist deals in "predictions." These are left for television oracles and newspaper astrologers. No one even faintly familiar with the complexities of forecasting lays claim to absolute knowledge of tomorrow. In those deliciously ironic words purported to be a Chinese proverb: "To prophesy is extremely difficult—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future."

This means that every statement about the future ought, by rights, be accompanied by a string of qualifiers—ifs, ands, buts, and on the other hands. Yet to enter every appropriate qualification in a book of this kind would be to bury the reader under an avalanche of maybes. Rather than do this, I have taken the liberty of speaking firmly, without hesitation, trusting that the intelligent reader will understand the stylistic problem. The word "will" should always be read as though it were preceded by "probably" or "in my opinion." Similarly, all dates applied to future events need to be taken with a grain of judgment.

The inability to speak with precision and certainty about the future, however, is no excuse for silence. Where "hard data" are available, of course, they ought to be taken into account. But where they are lacking, the responsible writer—even the scientist—has both a right and an obligation to rely on other kinds of evidence, including impressionistic or anecdotal data and the opinions of well-informed people. I have done so throughout and offer no apology for it.

In dealing with the future, at least for the purpose at hand, it is more important to be imaginative and insightful than to be one hundred percent "right." Theories do not have to be "right" to be enormously useful. Even error has its uses. The maps of the world drawn by the medieval cartographers were so hopelessly inaccurate, so filled with factual error, that they elicit condescending smiles today when almost the entire surface of the earth has been charted. Yet the great explorers could never have discovered the New World without them. Nor could the better, more accurate maps of today been drawn until men, working with the limited evidence available to them, set down on paper their bold conceptions of worlds they had never seen.

We who explore the future are like those ancient mapmakers, and it is in this spirit that the concept of future shock and the theory of the adaptive range are presented here—not as final word, but as a first approximation of the new realities, filled with danger and promise, created by the accelerative thrust.

저자 서문 15

또 한 가지 유보사항은 「...할 것이다(will)」라는 동사에 관한 것이다. **진지한** 미래주의자는 「예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TV의 점장이나 신문지상의 점성가들이나 할 일이다. 예측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미래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 법이다. 중국 속담에도 「예언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미래를 예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재미있는 풍자가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관한 모든 서술이 웅담 「만일」, 「그리고」, 「그러나」, 「다른 한편」 등의 일련의 한정사를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에서 해당되는 한정사를 모두 써넣는다면 독자는 「아마도」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명한 독자가 이 문체상의 문제를 이해해 주리라 믿으면서 실례를 무릅쓰고 서슴없이 단호한 표현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할 것이다」라는 말의 앞에는 항상 「아마도」라든가 「내 생각에는」이라는 말이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날짜도 줄잡아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미래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침묵이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물론 「확고한 자료」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확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책임있는 저자에게는—심지어 과학자도—인상적이거나 일화적인 자료 또는 정통한 사람들의 의견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증거에 의존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필자도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취했지만 구태여 일일이 변명을 하지 않겠다.

적어도 이 책의 목적을 위해 미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중요한 것은 100% 「옳다」는 확신보다는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옳은」 이론이라야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론도 도움이 된다. 중세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런 세계지도는 형편없이 부정

16

확하고 오류 투성이어서 지구 표면의 거의 전부가 지도로 작성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쓸쓸한 미소를 자아내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나마 없었더라면 위대한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 당시에 입수할 수 있었던 제한된 증거를 이용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의 모습을 대담하게 종이 위에 옮겨 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보다 우수하고 정확한 지도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미래를 탐험하는 우리는 마치 옛날의 지도 제작자들과 같다. 그리고 이 책에서 미래 쇼크의 개념과 적응범위(adaptive range) 이론을 제시하는 것도—결론으로서가 아니라 가속적 추진력에 의해 조성된 위험과 약속으로 가득찬 새로운 현실에 관한 맨 첫번의 근사치로서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Alan Kay (1940~), Computer Scientist

My Approach

☞ **speaking firmly, with little hesitation**
(one-armed economist)

Harry. S. Truman(33rd) had little interest in economics and little time for economists. He joked that he would like to meet a one-armed economist so he could not be tol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 **view : mid & long-term with imagination**
(iPhone3GS case)

☞ **interactive : debates + references**

최창규

매니저/ 경영전략실 미래전략팀

※ Disclosure

절대로 남에게 조언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현명한 자는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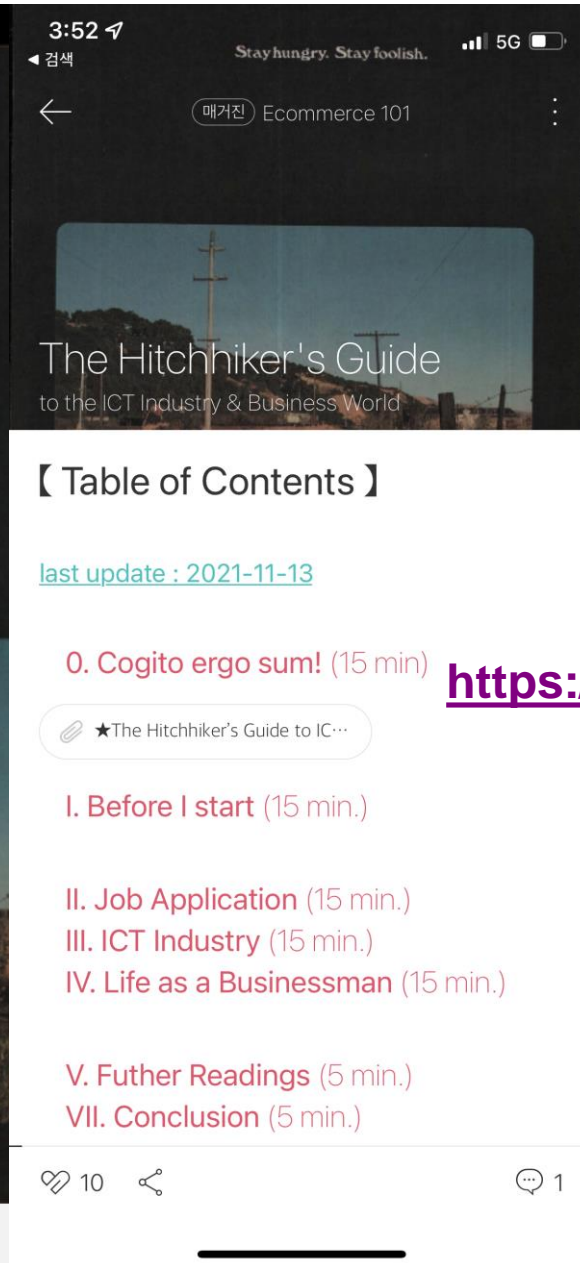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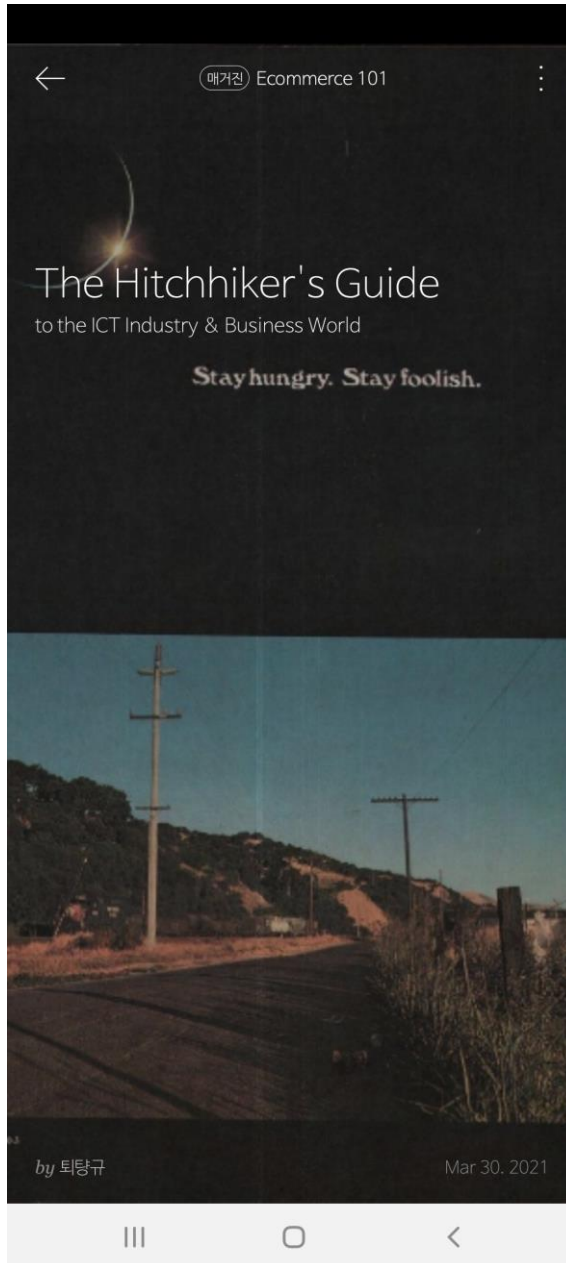
so-called Experts



sayuripokopon

버스에서 어떤사람이 말을 더듬거리며 옆에있는 남자에게 목격지까지 얼마나걸리느냐고 물어봤다.옆에있는 남자는 그의 말을 듣고있으면서도 계속 무시했다.그것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아저씨가 버스 문이 열리자 그남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장애가 있는 사람,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할수없었기 때문이다.남자는 말을 더듬거리며 울면서 말했다.자신도 말을 더듬거리니까 대답하면 상대가 자신을 흉내냈다고 생각할 것이다.이것은 더 큰 상처를 주는것이고 자신은 누구보다 그 고통을 안다고 했다..그 이야기를 듣고 늘 생각한다.자신의 정의가 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접기

twtkr for iPhone에서 작성된 글




<https://brunch.co.kr/@tyangkyu/33>



End of Document

Choi, Chang-Kyu
(choi.changkyu@gmail.com)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 John Lennon

출처 : www.thequotes.in